서울YWCA

2021 11/12
vol.615

사단법인
서울YWCA

1995. 12. 9

성탄모임

구회관이 철거되기 전 마지막 이사 · 위원 · 직원 성탄모임이
1995년 12월 9일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경렬 교수(서일대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함께한 5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구회관과 함께한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더욱 발전할 미래를 기대하며 서울Y 사랑을 다짐한다.

온누리에 빛을 발하는 서울Y
지(智) 덕(德) 체(體)를 상징하는 YWCA 삼각형 마크에
일곱빛깔 무지개 천을 천정에서 드리워 온누리에 빛을 발하는 서울Y를 형상화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월 공동기도

하나님, 잎 진 나무들이 알몸으로 찬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에 가려졌던 상처며 옹이를 부끄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아픔과 상처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하늘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이
생명의 장엄함임을 깨닫습니다. 이 스산한 계절, 마음 시린 이 곁에 다가가
그들을 곁부축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12월 공동기도

하나님, 기다림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조차 없다면 인생은 권태의 늪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취약해지는 일임을 압니다.
무정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서울 YWCA
vol.615
2021년 11·12월호

2 숫자로 보는 서울Y
4 나를 살리는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는다
6 Y 이슈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8 현장 속으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실천편
신앙과 페미니즘의 경계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샬롬"
12 환경과 여성
소중한 것은 산산이 사라지고
14 기독신앙과 여성
서로를 건설하는 가정
16 예술과 여성
포토몽타주로 시대에 저항한 다다이스트
한나 회흐
18 소비자 상담
신나는 여행,
렌터카 때문에 망치기 싫다면?
20 서울Y 소식
9 · 10월 뉴스
11 · 12월 행사안내
11 · 12월 캘린더
26 알림터
28 후원 소식
32 하나님의 정원

〈서울YWCA〉 2021년 11 · 12월호 **통권** 제615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검색창에 서울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네가 어디 있느냐?”

인 미
홍보출판팀 위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태도이다

지금까지 방송작가, 취재 기자, 대사관 공보실을 거쳐 10년 이상 토크쇼 구성작가로 일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리더들을 만났다. 수많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됐다.

직업 때문에 빛나는 사람과 그 사람 때문에 빛나는 직업이 있다. 결론은 무엇을 하느냐(What) 보다 어떤 태도(How)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태도가 자리를 만든다. 언젠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끝내고 센트럴 파크를 지나다 청소하고 있는 흑인을 만났다. 공원을 더럽힌 사람들을 욕하며 화를 내는 그에게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말했다. “형제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구석이 당신을 통해 깨끗해지고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겠소?”

저는 죄인이올시다

동양인 최초로 종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은 첫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순간 축하객들은 당황했다. 온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은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세상 영광을 거머쥘 수 있는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다. 다음 순간 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분은 알고 계셨다. 인생의 영광을 받아야 할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나는 죄인일 뿐. 모든 영광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이 권력이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다는 순간 모든 사탄의 유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욕심에 휘감긴다. 돈이 목적이라면 생명을 담보로 오징어 게임에 불과한 인생으로 전락한다. 반면 생명이 목적이라면 진리를 향한 십자가 게임이다. 공통점은 둘 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왜 그 “자리”에 있으려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을 드러내거나 둘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있음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선택은 분명해진다. 누군가 이제 ‘앎’에서 ‘삶’으로, 해설자에서 삶의 증인으로 사십시오라고 했던 글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권력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

오늘도 이 울림이 가슴 속에 울려야 하지 않을까.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는다

엄홍경
피스톡톡 · 총신대 4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처음 맞았을 때, 우리는 코로나가 곧 지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에도 코로나의 기세는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다.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전환하거나 소규모의 집단만을 교회 예배에 허용하는 등의 기존 예배와는 다른 예배 방식을 차용하기도 했다. 비단 한국 교회뿐 아니라 대학은 LMS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서울Y 평화통일 동아리 피스톡톡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열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보다 대학 졸업반으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또는 새로운 경험은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나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었다. 게다가 이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뜻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걱정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말씀은 이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 : 21-22)

이 말씀은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한 일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갔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내 능력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 무수한 날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전 날의 내 행동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내 믿음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진정으로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는다’가 되었다. 이 고백은 믿음과 순종과 삶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다. 이 고백은 살아있어야 한다. 움직이고 요동쳐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직접 움직여야 한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회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예배와 기도, 믿음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많은 위험이 있고 힘도 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살아내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MZ세대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다

서울Y는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관했다.
올해 평화순례는 9월 15일과 10월 1일에 열린 '길 위의 평화포럼'을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홀로 걷는 평화순례'로 이어졌다. 10월 14일 서울Y 회관 대강당에서 폐회식을 열고 순례를 마무리했다.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는 YWCA 창립 100년을 향한 비전수립을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5주년인 2017년 한라산 등반을 시작으로 2018년 지리산, 2019년 태백산을 거쳐 창립 100년이 되는 2022년 백두산을 오르는 평화운동 프로젝트다. 2022년에 창립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연합회, 광주Y, 서울Y가 매해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올해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평화포럼은 MZ 청년세대와 함께해 주목을 끌었다. 1차 포럼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 이해'를 주제로 남문희 시사IN 기자가 이끌었다. 미 · 중 · 러 · 일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와 현안에 따라 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짚어주며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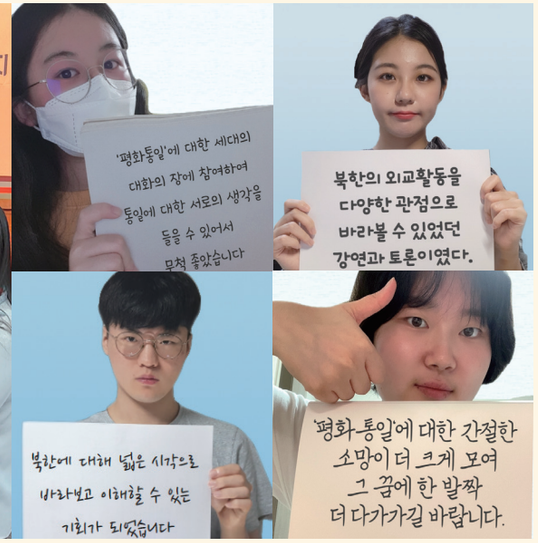
2차 포럼에서는 'MZ세대의 출현과 통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남북 협력의 형태로 '공존'을 제안하며 그럼에도 공존이 통일의 대안으로 단순히 정의되는 것은 위험하고, 공존의 궁극적인 형태로 통일에 대한 지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이 될 MZ세대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YWCA 창립 99주년을 기념하여 '홀로 걷는 평화순례'에는 99명이 평화순례단으로 참여했다. 평화를 깊게 묵상하며 잠잠히 홀로 걷는 시간은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폐회식에서는 지난 5년간의 평화순례의 여정을 영상으로 나눈 뒤 서울Y 평화통일 동아리 피스톡톡 고하은 회원의 평화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반도기를 다음 평화순례를 주관할 연합회에 전달한 후 참가자 모두가 여성평화기도문을 읽으며 통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오만과 편견을 벗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유림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순례를 마치는 내년에는 백두산에 올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평화'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YWCA 회원의 바람을 담은 평화의 깊은 울림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덮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원한다.

서울Y는 다음 평화순례를 주관할 연합회에 한반도기를 전달했다.



길 위의 평화포럼에 참여한 MZ청년들

세종Y **양유정**
밤길을 순례하며 평화를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산넘고 강넘어
이곳까지 맨몸으로 왔을까요.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홀로 걷는 평화순례

충주Y **이예림**
비 내리는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평화의 순례를 이어갑니다.
평화! 우리이기에 가능합니다.

길 위의 평화포럼

MZ세대, 통일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교류 확대 원해

고하은 서울Y 평화통일운동 인턴 ·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 전공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Y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두 차례의 평화포럼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많은 Y회원들이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 의견도 존재했다. 특히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MZ세대 간에는 통일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Z세대는 대체로 통일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평화통일운동에 있어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과 학습, 세대 간의 소통과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YWCA가 시민여성운동 단체로서 계속해서 이번 평화포럼과 같은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을 확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나 또한 그 길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실천편

메타버스 숲속에서 펼쳐진 부부소통 축제

서울Y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9월 11일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 실천편'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었다.
배움으로(Learn) 평등하게(Eqaul) 소통을 실천하며(Practice) 서로를 인정하는(Accept)
LEPA부부들만을 위한 소통의 숲, 레파숲이 온라인 가상공간에 마련됐다.
올해로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34기로 선정된 신혼부부 107커플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아바타로 레파숲을 찾아
메인이벤트는 물론 숲 곳곳에 마련된 체험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다.

부부 소통 강연회

장동선 뇌과학박사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 부부는 평생 서로에게
배워야 하고, 서로에 의해 변화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장동선 박사는 실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참가부부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회를 이끌어 나갔다. 특히 3C!
배우자를 계속 알아가려는 호기심(Curiosity), 부부가
서로 연결되는 힘(Connection), 상대가 아닌 내가 먼저
변화하기(Change)가 부부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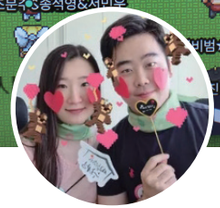
숲속 작은 음악회

뮤지션 '해리안&윤소안'

신혼부부들의 행복과 사랑을 기원하는 힐링러브송을
선사했다. 한 참가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내일부터 신랑을 기타학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댓글을
올려 웃음을 자아냈다.
참가부부 신청곡 〈영화 Lala Land〉의 'City of
stars'가 감미롭게 울려퍼졌다. 신청한 부부가
결혼식 때 축가로 함께 부르기 위해 영어로 된 가사를
외우느라 고생했다는 사연과 함께 모든 부부가 첫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가길 응원했다.

다양한 체험존

레파숲에는 총 14개의 체험활동존이 준비됐다.
퀴즈탐험 부부의 세계, 우리집 가훈 짓기,
부부소통지수 알아보기, 친환경 리스 만들기, 신박한 하트를
비롯해 온라인 숲에서 쓰담걷기(쓰레기 주워 담으며 걷기),
소원나무 심기, 나에게 맞는 비건 푸드 찾기 등
친환경 생명살림 활동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전체 참여부부가 나무심기에 도전!
총 1,035그루의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온라인 나무숲 장관을 선보였다.



참여후기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김혜수 & 주형진 부부

우연히 알게 된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싸울 때가 많은 우리
부부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행복상자 속 선물 하나하나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부 평등의 고민들을
느낄 수 있어 기분 좋았다.
메타버스는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졌다. 레파숲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니
마치 게임하는 느낌이었다.
'부부소통지수 테스트', '스칸디아모스
리스 만들기', '신박한 하트' 등 반나절 동안
무려 9개의 미션을 수행했다.
레파숲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메인
이벤트에서는, 사회자의 깔끔한 진행과
해리안&윤소안 남매의 멋진 라이브공연
그리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까지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었다.
강연회 시간, 질문을 통해 우리 부부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았는데 바로 '자존감'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자신에게 냉정했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을 열어 준 감사한 시간.
레파숲에서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신앙과 페미니즘의 경계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샬롬”

신앙과 페미니즘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청년들. 특별히 ‘여성 청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페미니즘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교회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여성 청년들은 교회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Y가 내몰린 그들의 ‘곁’에 서기 위해 페미니즘 입문서 『샬롬, 페미니즘입니다』를 제작하고, 온라인 성평등 교육 〈크리스천 페미살롱〉을 8회에 걸쳐 진행했다.

크리스천 페미니즘 입문서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에 선 청년들에게 건네는 인사『샬롬, 페미니즘입니다』’는 페미니즘과 신앙의 경계에 선 청년들을 위해 기획됐다. 20-30대 청년들이 신앙과 페미니즘을 통합하여 기독교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페미니즘 입문서이다. 이 책에서는 페미니즘과 신앙의 공존을 모색한다. 물론 중장년도 읽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필진이 참여했고, 교재개발 편집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했다. 책은 총 5부, 21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대주제는 1부) 페미니즘과 신앙, 만나다, 2부) 성경을 뚫고 나온 여성, 3부) 익숙한 가족, 새로운 가족, 4부) 성(聖)스러운 성(性), 5부) 교회 안의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이다. 또한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과 페미니즘이 한 데 어울려 활발히 토론할 수 있도록 매 챕터마다 유용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에 죄책감을 가진다는 20-30대 여성 청년들, 교회의 직분과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이 책은 용기가 될 것이다. 책 개발 과정에서 당사자인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의 경계에 선 5명의 여성 청년들과 책 내용을 나누는 교재개발 워크숍 “청년들의 목소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다”를 9월 6일에 진행하기도 했다. 기존의 청년 교재에는 담기지 않았던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많은 부분 반영하려 했다. 청년들은 이런 책을 발간한다는 자체가 앞서가는 것이며, 청년들의 생각들을 말하는 ‘장’을 열어 주어 고맙다고 전했다.

책 발행을 앞두고 진행된 온라인 북토크가 10월 12일 열렸다. 3명의 편집위원(오수경 대표, 채송희 목사, 장근지 연구원)이 패널로, 3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다.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활용해 차별화된 북토크를 시도했다. 처음 접하지만 어린아이부터 60대 참여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책과 관련된 이야기와 질문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OX게임도 하고, 책 내용을 미리 경험하는 활동도 했다. 참여자들은 “다른 곳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북토크였다.” 감탄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 참으로 기뻤습니다”라며 연대의 기쁨을 나누었다.

서울Y는 청년들이 신앙과 페미니즘을 통합하여 기독교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페미니즘 입문서를 제작하고 메타버스에서 북토크를 열었다.

크리스천 페미살롱은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화면에 인형이나 소품을 두고 진행됐다.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안전한 공간 〈크리스천 페미살롱〉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2030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에 모였다. 기독교 페미니즘의 다양한 담론을 짚고, 함께 페미니즘과 신앙이 공존하는 길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크리스천 페미살롱〉은 총 8회기의 강의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화 · 목에 진행되었고, ① 기독교 페미니즘 ② 여성주의 성서해석 ③ 가족의 다양성 ④ 섹슈얼리티 ⑤ 성차별, 성폭력 등의 주제로 8명의 강사진이 함께했다. 또한 청년 대상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40-60대도 끝까지 참여하는 배움의 열정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이런 기획이 계속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응어리가 풀리는 시간이었다”며 “위로가 되었다”고 했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속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강의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서울Y에 고마움을 전했다.

“신앙과 페미니즘과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다. 우린 이 경계를 허물 수 있을까? 사실 복음도 모든 사회적 기준과 당대 사회의 경계를 넘는 기쁜 소식이었고,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배제되고 소외된, 벼랑 끝에 선 자들에게 빛이 되어준 구원이자 해방이었다. 예수님도 당대의 경계를 넘으신 분이었던 것이다.

경계에 선 모든 이들의 곁에 서신 예수님처럼 서울Y도 경계에 선 청년들의 곁에 서고, 때론 경계를 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과 신앙 사이의 경계에서 갈등과 좌절을 느끼며 흔들리는 청년들의 곁에서 예수님의 “샬롬”을 건넨다.

글_ **이기쁨** 여성참여팀 활동가

소중한 것은 산산이 사라지고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시무레 미치코의 〈슬픈 미나마타〉는 1950년대 말 일본의 구마모토 앞바다에서 벌어진 어촌의 비극을 그린 소설이다. 비극의 원인은 유기수은중독이고, 비극의 제작자는 수십 년 동안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내다 버린 일본 질소비료회사였다. 이시무레는 미나마타병에 걸린 환자들을 만나고 의사의 증언을 기록하고, 정치가들의 언론보도를 옮기며 유기수은의 독성이 어떻게 바다를 더럽히고 해양생물을 몰살하여, 마침내 어부와 그 자식들까지도 온몸을 비튼 채 눈만 끔벅대며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들려준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고발하는 르포가 아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처럼 무너져버린 타인의 삶에 주목했던 것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안 누려온 근원적인 즐거움이 산업문명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불행의식 때문이었다. 수은중독의 고통에서 헤매는 환자들을 시골방언으로 소중히 그려낸 것은 사라져가는 그 즐거움을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이 작품의 원제는 〈고해정토〉인데 바로 고해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정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슬픈 미나마타**」(원제 苦海淨土)
이시무레 미치코 지음, 달팽이 펴냄, 2007

지금의 우리가 잃어버린 정토

어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3장 '유키 이야기'를 보면 도시의 월급쟁이들은 절대로 모르는 어부들이 누리는 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밤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역시, 바다야, 바다가 제일 좋았어. 봄부터 여름이 되면 바닷속에도 온갖 꽃들이 만발하지. 바닷속에도 명소라는 게 있어. 빙 한 바퀴 돌면 익숙해진 우리 코에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의 바다 향기가 풀풀 풍기거든. '회사'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바닷속 풍경도 육지하고 똑같이, 봄도 가을도 여름도 겨울도 있다우. 나는 바닷속에는 반드시 용궁이 있다고 믿어, 꿈처럼 아름다울거야. 바다에 질리거나 하는 일은 죽어도 없어. 다시 한번 가고 싶어라, 바다에"

사지가 비틀어져 꼼짝을 못하는 유키의 회상은 깨끗했던 바다에 기대 살던 삶이 진정한 정토였음을 보여준다. 월급쟁이의 노동과 달리 어부의 노동은 고되더라도 정토를 맛볼 수 있다. 미나마타의 어부들은 가난했지만 바다가 주는 것을 먹고, 자연을 받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같이 살아왔다고 한결같이 회상한다. 타인에 대한 평화로운 심성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은 바다가 이들에게 준 선물이자 지금의 우리가 잃어버린 정토이다. 이시무레는 근대라는 것 자체를 고해의 원죄로 보았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 것은 근대적 욕망,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의 서식지인 자연을 끝도 없이 망가뜨리는 것을 진보이자 발전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산업문명과 바닷속 평화

나는 일전에 〈오징어게임〉보다 더 흥미로운 다큐를 보았다. 제목은 〈나의 문어 선생님, My Octopus Teacher〉. 우울증을 앓던 한 다이버가 고요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난 문어 한 마리를 관찰한 기록물이다. 다이버는 호기심에 날마다 문어를 찾아가 문어의 하루하루를 카메라에 담게 되는데, 이 작업을 무려 일 년 동안이나 계속한다. 카메라에 담긴 문어는 마트의 해산물 코너에 누어있는 횟감이 아니었다. 낯선 인간에 대해 저 녀석은 누구인지 탐색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상어가 공격하자 주변의 조개들을 이용해 변장하는 '머리'도 있다. 또한 다이버와 안면이 생기자 발을 사용해 사람의 몸을 더듬는 '호기심'도 있고, 처음 보는 물고기 떼를 만나자 그 속에서 함께 군무를 추며 놀 줄 아는 '감정'도 있다. 다이버는 문어와 가까워지자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영리하지만 방어력이 없는 문어 곁에는 언제나 상어 떼가 어슬렁거렸기 때문이다.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 (2020)
다큐멘터리, 90분
감독 제임스 리드, 피파 에리치
제작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인간중심적이다. 문어는 눈만 뜨면 먹이나 찾아다닐 거라는 생각, 상어가 무서워 날마다 긴장하며 불안해할 거라는 생각, 그래서 놀거나 즐기거나 행복해할 줄도 모른 채 결국엔 불쌍하게도 상어 밥이 될 거라는 생각… 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보 같은 편견임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화롭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며 너른 바닷속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아무 원망 없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상어 밥으로 내어주는 놀라운 고등동물의 모습을 보았다. 비록 짧은 일생을 살다 갔지만 그에게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삶을 만족스럽게 누릴 용기가 있었다.

문제는 미나마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평화를 위협하는 것도 상어가 아니라 바로 산업문명이라는 점이다. 이윤을 위해 유기수은을 물속에 쏟아붓듯이, 돈과 편리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채우며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바닷속 꽃들이 사라지고, 문어도 사라지고, 상어도 사라지면, 그러면 바닷속은 평화로워질까, 아니면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린 채 황량하고도 쓸쓸한 삭막한 사막이 되어 있을까?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성

박혜영 교수는
에코페미니스트이자 영문학자로
시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저서로 「느낌의 0도」,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공저),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공저)
등이 있다.

'카이 알렐론(kai allelon)'

서로를 건설하는 가정

백소영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사회운동도 아니고 도대체 '4비'라니, 무엇의 약자일까?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4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묻는다. 물론 나는 답은 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비'는 아닐'비(非)'이다. 결혼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 나아가 연애, 성관계도 하지 않겠다! 물론 순결한 성 윤리를 가르치는 개신교 전통에서 보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얼른 반가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세상에서는 연애도 사치라는 현실감각의 반영이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갈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실리적 선택이다. 혈기와 에너지마저 잠재우고 개인적 성취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저출생국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초'를 덧붙일 만큼의 낮은 출생률은 단지 정책이나 프로그램 몇 개로 극복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제한된 가정 윤리로 교회가 놓친 절반의 모순

개신교의 경우 이런 커다란 사회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과거로의 회귀'로 극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기도회' 등이 그것이다. '예비 부부학교'도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이 같았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자녀와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 귀한 만남임을 강조했다. 홀로 뛰는 후기-근대인들의 제도적 감정을 '거스르며' 우리는 마주 봐야 한다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에서 살아남느라 그간 아내나 자녀들에게 무심했던 아버지들이 눈물로 회개했고, 자녀를 자신의 아바타쯤으로 여기며 성공의 지표로 삼기 위해 닦달하던 어머니들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몹시 불편했다. 가정회복이 싫었다는 말이 아니다. 성역할 분업이 고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과하면서 이룬 개혁적 신앙의 내용 중에서 '반만' 이룬 제한된 가정 윤리로 교회가 놓친 절반의 모순을 애써 가리는 행위이다. 그동안 개신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 관계로 설명했다. 전통사회에서 주종관계로 묘사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해석이었다. 하여 성경에서 인용구를 찾을 때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주인이여'라고 불렀던 부분은 소환되지 않았다. 주로 사도 바울의 부부관이 집중을 받았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그를 그리스도처럼 따르며 순종하는 아내라니!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 '낭만'은 근대 중기까지였다. 남편의 외벌이 노동이 가능했던 시절, 전문성을 가진 아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말이다.

가장 작은 교회, 가정

후기-근대를 살아가는, 신실하며 똑똑한 젊은 자매들은 한동안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내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 아니면 육아를 하며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적자생존의 살벌한 경쟁 구조에서 둘 다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여성은 '성경적'이기 위하여 일을 놓아야 하나? 하지만 '돕는 베필'의 히브리 원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문자적으로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다. 그 말은 결코 일방향도,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도움'에 어찌 미리 정해진 답이 있을까? 도움은 제대로 마주 본 뒤에야, 그래서 내가 마주 본 사람의 상황과 의미를 파악해야 비로소 제공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마주 보고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시며 사람을 '복수'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결코 혼자로는 못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오이코스(집,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은 결혼제도를 통한 핵가족을 포함하나 그 안에 갇히지는 않는다. 남녀의 역할 분담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서로가 함께 하고 서로 도우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건설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결합이다. 연대다.

'카이 알렐론(kai allelon)', 사도 바울이 교회로 사는 사람들의 관계 원칙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의 가족(오이코스)이다. 그러니 기독교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셈이다. 그 관계 안에 기능적이든 전통적이든 모든 불평등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아내도 남편도) 한 분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일 뿐.Y

'돕는 베필'의 히브리 원어 '에제르 케네그도'는
문자적으로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다.
그 말은 결코 일방향도,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주 보고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시며
사람을 '복수'로 창조하셨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신앙과 여성

포토몽타주로 시대에 저항한 다다이스트
한나 회흐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한나 회흐 Hannah Höch
1889. 11. 1 – 1978. 5. 31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무자비한 파괴의 전쟁은, 그 어느 대륙보다 이성과 합리에 의거한 문명국가에 살고 있다 여겼던 믿음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냉소적인 허무주의자로 만들어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다(Dada)'라는 언어가 미술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스위스 취리히의 볼테르 카바레(카페)에서 열린 젊은 예술가와 반전주의자들의 모임에서였다. 사전에 끼워져 있던 봉투 개봉 칼이 '다다(말 머리가 달린 어린이 장난감)'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 참석자들은 우연히 발견한 이 단어가 기존의 가치와 미학에 반기를 든 자신들의 예술 활동과 반전운동에 적합한 단어라 생각했다. 기존의 작가들은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다다이스트들은 무의미, 우연성 즉흥성, 불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예술을 지향했다. 다다이즘은 1922년까지 지속되며 그 후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준다.

세상의 위선과 부조리 풍자

한나 회흐는 독일 베를린 다다 운동의 유일한 여성 멤버로 1919년부터 다다이즘에 참여했다. 베를린 다다는 여러 다다 그룹들 중 가장 정치적 색채가 강한 그룹으로 잡지나 신문 등의 인쇄물에서 사진을 오려 붙이는 포토몽타주 기법의 특징을 보인다. 진보를 내세운 남성 다다이스트들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 회흐를 동료 작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인이 있음에도 회흐와의 관계를 지속했던 라울 하우스만 조차 '한나가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천재성을 드러내느라 바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것'이라 말할 정도였다.

회흐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미술계에 반발하여 작품을 통해 세상의 위선과 부조리를 조롱하고 풍자했으며, 특히 성차별, 여성인권, 사회의 불평등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회흐는 남성 미술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0년 제1회 다다 전시회에 「독일 마지막 바이마르 배불뚝이 문화시대를 다다의 부엌칼로 잘라버려라」를 출품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등장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치,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작품은 오늘날 가장 다다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해에 만든 「아버지(Der Vater)」라는 포토몽타주 작품에서는 여성 가운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아기를 안고 앉아있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여성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부장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있다. 그 주변에는 다리를 활짝 펼치고 춤추는 여성들을 배치하여 여성해방을 표현하고, 전면에는 뒤돌아서서 팔을 뻗고 있는 남성을 배치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유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을 묘사해 냈다. 포토몽타주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는 붓질 한번 없이도 회화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아버지(Der Vater)」 포토몽타주, 34x27.5cm, 1920.

포토몽타주와 다다운동의 선구자

한나 회흐는 1889년 독일 고타(Gotha)에서 보험 감독인 아버지와 그림이 취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5세에는 여동생을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1912년 23세에 베를린 응용미술대학에 입학했다. 그림 공부를 반대하는 보수적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느라 그는 회화가 아닌 유리 디자인과 그래픽 아트를 전공했다.

회흐가 라울 하우스만을 만나게 된 것은 1915년으로 그들은 7년간 연인으로 지냈다. 자신의 가정을 깨지 않고 한나와 내연관계로만 있고 싶어 한 하우스만 때문에 여러 번 낙태 시술을 한 회흐는 자신이 그의 성적 만족의 소모품이라 깨닫고 그와 헤어진다. 이후 그는 독자적으로 포토몽타주기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작업을 계속했으나 1930년대에는 나치로부터 퇴폐화가로 낙인찍혀 개인전도 무산되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야 비로소 개인전을 열 수 있었다. 1965년에는 서베를린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1977년 명예교수 직함을 받은 그는 1978년 베를린에서 사망했다.

한나 회흐는 포토몽타주와 다다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울 하우스만의 연인 정도로만 기억되다 본격적으로 다다이스트로서의 그의 업적이 조명된 것은 1977년부터이다. 베를린시는 1996부터 한나 회흐 상을 제정하여 뛰어난 작가에게 15,000유로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회흐의 고향인 고타에서는 매년 그의 생일인 11월 1일을 한나 회흐 기념일로 지킨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여성

신나는 여행, 렌터카 때문에 망치기 싫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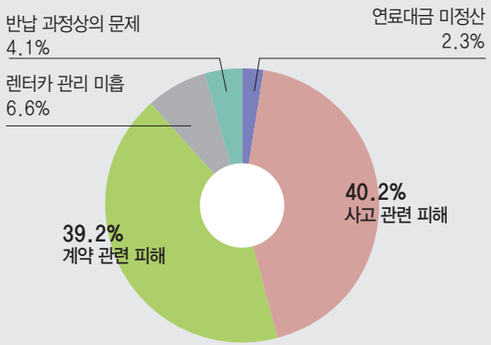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예약금 환급 거부 ·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국내여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253건, 2020년 342건으로 해마다 늘며 총 1,010건에 이른다.

이 중 휴가철인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이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2018-2021.5
(한국소비자원)



사례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되었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니 억울해요.

Y씨는 렌터카 업체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36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와 예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18만원)를 청구했다.

Y 상담 tip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씨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 사례의 렌터카 업체의 경우 규정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2 휴차료로 '실제 대여요금'이 아닌 '기준 대여요금'을 적용한 사업자가 괘씸해요.

W씨는 쏘나타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보조석 측면 차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면책금 10만원과 수리기간 10일에 대한 휴차 보상금 45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1일 대여료는 3만1천원인데 4만5천원(기준 대여요금)은 휴차료 1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하여 사업자에게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 기준 대여요금 :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대여요금
* 휴차료 :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Y 상담 tip 기준 대여요금은 실제 대여요금보다 통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상당수의 렌터카 업체가 휴차료 산정 시 실제 대여요금보다 더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해 휴차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가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대여요금은 실제 일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리_ **김보민** 소비자환경팀 간사

렌터카 대여 중 문제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 예약 취소,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 꼼꼼히 확인
-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 확인)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 상태나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 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 확인
-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 **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 등 사진 찍어 보관
-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렌터카 업체와 협의 후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 분쟁을 방지
-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이나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2021 장학금 전달

서울Y는 장학위원회를 통해 올해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39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후원자들께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베풀어주신 선한 마음 본받아 자신 역시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서울Y 장학금은 뜻이 있는 후원자들의 참여로 1975년 본격 조성되어, 도움이 절실한 Y-틴, 대학생 · 청년, 장애아, 돌봄회원 자녀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 장학금 후원 문의 : 02-3705-6034**

기업과 함께하는 그린 소비 실천 캠페인

서울Y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업과 함께하는 온앤오프 그린 소비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린 배송, 지구를 부탁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8개 기업(롯데홈쇼핑, 마켓컬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CJ ENM 커머스부문, GS홈쇼핑, NS홈쇼핑, 11번가)이 동참했다. 서울Y 회관에서 2일 열린 캠페인 추진 선언식을 시작으로, 서울Y SNS 채널을 통해 참여 기업의 배송 포장재 및 시스템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약속했다.

노원

취약계층 여성 위한 업무 협약

노원새일센터는 9월 17일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와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보 제공과 취업연계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새일센터 이용자 중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호 간 협력을 약속했다.

누리봄

추석 홈커밍데이 '행복 빚기'

누리봄은 추석을 맞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공동모금회와 우양재단의 후원으로 명절 선물을 누리봄 쉼터 입소자, 주거지원 입주자, 자조모임 참여자 각 가정과 나눴다. 특히 송편 만들기 키트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어보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함께 보내는 명절의 의미를 새겼다.

영등포

CS역량강화 교육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8일 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역량강화 교육을 열였다. 기본적인 내방객 응대방법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CS마인드 향상, 직장 예절, 민원인 응대법 등 CS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실무자들은 건강한 자기 관리법과 함께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CS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강남

청소년 자기주도 봉사활동 'V.I.P'

강남청소년수련관은 9월 11일 청소년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는 자기주도 봉사활동 'V.I.P.'(Volunteer is Important Person)'를 펼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플로깅(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용기내 챌린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영상에 담아 SNS에 게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봉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물품 나눔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추석맞이 물품 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24개 어린이집에서 전달받은 다양한 물품을 지역의 저소득가정 128가구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한편,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11월	12월
• 일시	11월 18일(목) 19:00	12월 16일(목) 19:00
• 주관	홍보출판위원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 문의	02-3705-6043	02-870-4400

창립 99주년 기념예배

- **일시** 12월 9일(수) 10:00
- **내용** 기념예배, 찬양집회
- **문의** 02-3705-6001. 6017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단계에 따라
진행 방식 추후 안내

영등포 온라인마케팅 교육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온라인마케팅 교육과정을 연다.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6개월 이내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도 참여 가능하다.

- **교육과정** 취 · 창업이 쉬워지는 온라인마케팅 (스마트스토어 & 홍보)
- **교육기간** 11월 8일-19일(월-금) 9:30-13:30
- **교육내용**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운영법, 쇼핑몰 홍보 · 마케팅
- **신청방법**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후 센터 방문 (사진, 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02-858-4514

누리봄 특별행사 '꽃이 피었습니다'

- **일정** 11월 12일(금)-13일(토)
- **장소** 관악구청 8층 대강당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활동내용** 보테니컬 아트, 누리봄 아동 창작 동화 전시회 등
- **문의** 02-888-7983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한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1월 17일(수)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11월 17일(수)-18일(목) 10:00-18:00	10만원
세이프맘			
간병사	60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11월 18일(목) 13:00-18: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제100회 정기총회

서울YWCA 제100회 정기총회가
2022년 1월 20일(목)에 열립니다.
제100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감사 · 결산 ·
사업보고와 함께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 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 **문의** 02-3705-6001, 601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합니다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 · 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 · 일상생활 ·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 · 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 · 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 · 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서울Y 큰장날

해마다 찾아오는 서울Y 큰장날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작은 규모로 열립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11월 4일(목) 11:00-15:00
- **장소** 서울Y 회관 4층
- **문의** 02-3705-6005

* 안전상 먹거리 코너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acare.com
- **문의** 02-3705-6071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ALENDAR 2021 11

월	화	수	목	금	토
1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 · 금) 9:30	2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 · 정책분과 13:00	3 · Y-틴 C.A(명지고) 14:20	4 **큰장날** 11:00	5 · 누리봄 봄블레스유 17:00	6 ·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평화콘서트' 10:00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20일) 15:00
8 위원회 역대이사 11:30	9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 'YWCA기금' 모금 발대식 · 2021년 정책워크숍 13:30	10 · 세계YWCA · 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10:00	11	12 · 누리봄 특별행사 꽃이 피었습니다 (~13일) 17:00	13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 · 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 · 간병사 14: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7일)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7일) 10:00
15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6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7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 · 아기돌보미 · 세이프맘 10:00	18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19 위원회 강남Y 11:00 · Y-틴 C.A(경기여고) 14:1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여성주의 글쓰기 워크숍 9:00 · 울력 정기모임 · 그린Y 온새미로 멘토링 13: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5:00
22 위원회 봉천Y 11:00	23	24 · 대신중 금융교육 (~26일) 10:00	25 · 실무자 영성훈련 13:00 · 봉천 후원자 · 자원봉사자 송년행사 14:00	26 · Access 영어스피치대회 14:00	27 · Y-틴 협의회 11:00
29	3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 대중매체 양성평등 심의모니터단 평가회의 19:00				

CALENDAR 2021 12

월	화	수	목	금	토
		1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 Y-틴 C.A(이화여고) 14:20	2	3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 · 금) 9:30	4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15:00
6	7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 · 정책분과 13:00	8	9 **창립 99주년 기념예배** 10:00	10	11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 · 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 · 간병사 14: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4: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5:00
13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4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 · 모금분과 13:00 · 창립100년 비전 · 정책 세미나 14:00	15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Y-틴 C.A(명지고) 14:20	16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17 위원회 강남Y 11:00	18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Y-틴 송년페스티벌 13:00 · 대학청년Y 우수활동가대회 13:00
20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1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2	2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24	25 성탄절 · 누리봄 쉼터성탄파티 17:00
27 위원회 봉천Y 11:00	28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9	30	31	

회원 소식

이옥희 이사 ·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8월 31일(화) 옥조근정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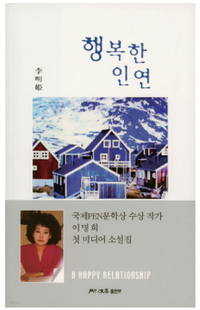
이선미 회원활동팀 위원
9월 30일(목) 부친상

이재숙 홍보출판팀 위원
10월 3일(일) 부친상

회원이 낸 책

행복한 인연

이명희 명예이사 지음
한국문인협회(월간문학 출판부)
펴냄



국제PEN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작가로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명희 명예이사가 온라인 시대에 어울리는 미디어 소설집을 펴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가 경험한 희비극적인 삶의 편린들을 수필과 소설이 융합된 형식으로 써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엮어낸 작품으로, 지난 8월 영랑문학상 소설부문대상에 올랐다. 잃어버린 낙원인 유년의 뜰에 대한 향수와 순수한 젊음의 애틋한 눈물과 사랑과 열정이 비네트(vignette)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이태동 문학평론가(한국문인협회 이사장)는 "온라인 시대에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과 인문학적 가치를 구원하기 위해 작가 이명희가 개별적인 장르의 틀을 넘어 융합적인 모델, 미디어 소설에 대한 비전과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실제적 예를 제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평했다.

후원 감사합니다

「Many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종이에 목판화, 1991. 109x78cm

박화영 작가(이홍자 역대이사 딸)가 10월 20일 서울Y에 목판화 「Many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을 기증했다.
작품은 서울Y의 수많은 회원들이 촛불처럼 빛나 태양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회관에 전시될 이 작품을 통해 회원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내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박화영 (196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프랫 인스티튜트 신조형과 석사
NYU Continous Education

2019년 〈비너스밴딧, 씨아터 옵스쿠라〉 세화미술관 개인전
2010년 〈쿠바 울트라소닉 블라인드 안테나〉 성곡미술관 개인전
2007년 〈치자와 단도〉 몽인아트스페이스 개인전

국내외 개인전, 그룹전, 상영회, 공연, 출판 다수 참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소장

감사합니다

2021년 8월–2021년 9월

특별 후원

일시후원

- **창립 100년 비전정책분과 후원** 최정희
- **큰장날 후원** 김계월 김초자 백지혜 양선희 우재숙 이필영 장수자
- **학용품 · 도서 후원** 최지온

김영자 박소현(이행자 위원) 송효수 진태호 한정우

정기후원

윤정자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1년 회보 '하나님의 정원' 칼럼 연재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1년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연재

북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나은 김난희 김민아 김민지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여현주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주동일
최동수 최 봄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한혜영

도서후원 정모아 Hannah Lee

복지사업단 후원

강명희 강민아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도근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변옥균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양진화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윤혜선 이관우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김정순 송순옥 월요까페 이홍자 임온유 정수경 조종남

핑크박스 후원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이윤선 이재림
임지영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최유진(위호정)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보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춘호
강충모 강하자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정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흥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형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옥
김기홍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회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정 김소희 김수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언정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민
김용갑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유진 김윤나 김윤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인선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정구 김정기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화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원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주한 김준경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욱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호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화진 김효숙 김효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승우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수연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아라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종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솔희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박은별 박은영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준성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경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반미복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재호 배정미
배정숙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산드라윤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분이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옥희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B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시욱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익경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병우 송상경 송선희 송성인 송세실
송영채 송예나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율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승 송혜현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하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서현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우람 신지숙 신지윤 신청희 신충섭 신현미
심경호 심다영 심영란 심재원 심정자 안병세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영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주희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금란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염혜정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태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한
왕청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연숙 유원균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아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현진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준 이동헌 이명순 이명원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석초 이선덕 이선미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소영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진
이승철 이승한 이승헌 이승혜 이시현 이시형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경
이재림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제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천희
이춘옥 이충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헌국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인 임등자 임명희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소영 임연수 임완철 임우택 임재영
임정자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숙 장혜영
장화정 장휘진 전덕기 전민구 전봉숙 전상숙 전소영 전영경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한솔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롱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태순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길수 조남억 조명희 조미남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빈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경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춘숙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형로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지흥배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A 채송화B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초혜민
최광기 최기은 최두훈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봄
최봉수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희B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인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정 최윤주 최윤형 최은주 최재국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금례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아소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 웅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유진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제이티 (주)체험왕 중앙이엔씨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튤립나무
Tulip tree
木白合

목련과 Magnolia family 넓은잎 큰키나무

꽃 모양과 씨앗의 생김새가 튤립꽃 같다고 튤립나무라고 하는데,
백합꽃 닮았다고 목백합木白合이라고도 부르지요.
큰 키와 넓은 잎의 모양이 얼핏 보면 포플러나
플라타너스와 비슷해서 영어로는 Tulip Poplar,
Tulip Platanus라고 해요.

나무가 빨리 크게 자라고 모양이 훤칠해서
도시의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수로 많이 심는데,
여름에 피는 녹황색 꽃은 키가 큰 나무 위
무성한 잎 사이에서 하늘을 향해 피기 때문에
유심히 올려다 봐야만 눈에 띄지요.

잎은 독특한 사다리꼴 모양인데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면 보기 좋아요.
겨울철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빈 가지에 매달려
튤립 모양으로 벌어진 씨앗에 하얀 눈이 덮히면
마치 아이스크림콘 같답니다.

글 **이경순** 명예위원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or.kr	870-4400
스포츠센터	수영 · 헬스 · 피트니스 3705-603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구인	가사돌보미 · 산후조리사 · 아기돌보미 3705-6013~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간병사 858-4516~7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누리봄	www.bongchuny.or.kr	888-7983